

골프장 안전사고 속출 관리·감독시스템 시급

이용객 증가 속 안전대책 무방비
포괄적 규정 행정 처분 어려워
지자체 감독 부여 목소리 고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골프 인구의 가파른 증가 속에 골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사고 발생 시 골프장과 이용자의 책임 소재를 가릴 법률 기준이 애매모호한 데다 정기 점검 등 시설 개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시설 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법 개정과 함께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 골프장의 이용료 인상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골프장 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은 포괄적인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범위 등이 규정돼 있다.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나서야 한다.

골프장업의 안전시설의 경우 위치 지형상 타 구에 의해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시행규칙에 담겨있다. 또 각 골프 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점검의 주체와 대상, 시설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돌발 상황·사고 발생이 잦은 사업장이 아닐 경우 골프장 측의 자체 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와 기초자치단체는 안전사고 등 골프장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법에 따라 반기별로 정기 점검을 나두고 있지만 시정·권고 등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골프장 시설 문제나 사고 발생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며 “주기적 정기 점검의 경우 시설 규정에 맞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뿐이다.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용객들은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골프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골프장의 타구 사고는 2017년 27건, 2018년 36건, 2019년 75건, 2020년 100건, 2021년 118건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같은 기간 추락사고는 59건이, 카트 사고는 132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관련 법령에 골프장 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시정조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 시설물 설치 규정 보완과 안전 점검 강화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골프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상위 법령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자체에 관리 권한을 부여해 골프장의 갑질 규제 등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골프장 이용 인구 급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골프장 안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2일 오후 광주 서구 무진대로 일대에 뜨겁게 달구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김생훈 기자

오늘부터 장마...광주·전남 이틀간 최대 120mm

침수·범람·급류 등 대비해야

광주와 전남에서 23일 오후 장마가 시작하겠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저기압에 동반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3일부터 광주와 전남에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이 비를 시작으로 전국이 장마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장맛비는 광주와 전남에서 24일까지 이틀 동안 30~100mm 오겠다. 많은 곳은 120mm 이상 예상된다.

광주·전남에서 지난해 장마는 7월 3일 시작해 같은 달 19일 끝났다. 평년(1991~2020년) 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24일이었다.

장맛비가 내리면 30도를 웃도는 낮 최고기온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 하겠다.

장맛비는 24일까지 내리다가 오후(3~6시)에 차차 그치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침수·범람·급류 등에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광주와 전남 10개 시·군에 발효된 폭염 특보가 해제됐다. /민찬기 기자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자 발생

독일서 입국 내국인...방역 강화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글로벌 보건 위기 우려를 낳고 있는 감염병 원숭이두창의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 수준을 ‘주의’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브리핑에서 “2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씨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염기

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께 한국에 들어왔다.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해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의심자)로 분류됐다.

이후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한 후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 이송돼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입국 전인 지난 18일 두통 증상이 있었고, 입국 당시에는 37.0도의 미열과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병적 작용에 의해 피부 세포나 조직에 일어나는 변화)을 보였다.

역학조사 결과 A씨에 대한 고위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접촉자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3단계로 분류하는데, 이 중 고위험군은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 이내에 접촉한 동거인, 성접촉자 등을 말한다.

확진자가 발생하자 질병청은 이날 위기평가회의(의장 질병관리청장장)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와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INSIDE NEWS

- 누리호 양방향 교신 성공 2면
- 지자체별 유공자 처우 제각각 6면
- 전남매일 독자권익위 2차 회의 12면
- 장마철 앞두고 배추·무 가격 올라 18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33
전남매일 33주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resident's Council on Economic and Regional Development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희망 자원의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